

“ ‘군산 시간여행축제’ 참여하세요 ”

군산시, 전북 트래블마트 GSCO 관광홍보관 운영... 9월 15~18일 ‘시간여행축제’ 등 홍보

군산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1박 2일간 개최된 제5회 전북 트래블마트에 참여해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군산관광’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펼쳐 멀티관광도시 군산의 인지도 제고와 군산 관광 상품 안내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제5회 전북 트래블마트는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도와 14개 시·군, 관광업계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1박 2일간 도내 일원에서 비즈니스 상담회, 전라북도 관광토크쇼, 전북관광 상품 개발 답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1박2일 동안 진행했다.

시는 이번 트래블마트 기간 중 29일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상담회에 여행사, MICE업계, 언론사, 여행작가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관광홍보관을 운영했다.

관광홍보관의 운영을 통해 군산시는 오는 9월 15일부터 3일간 ‘1930s 근대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를 비롯하여 군산이 간직한 이색적인 근대문화유산과 천혜의 비경을 품은 고군산군도 등 군산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집중 홍보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잠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군산민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인 근대문화유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여행마을과 시간여행축제, 그리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기대되는 고군산군도에 대한 홍보를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SCO에 주차된 시간여행축제 홍보차량



GSCO에 주차된 시간여행축제 홍보차량

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어울리는 시켜 방문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 '올드카 콘셉트'로 감쪽하고 눈에 띄 여 시간여행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 는 외관으로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 /군산=장 현 기자

군산보건소, ‘일본뇌염’ 경보

질병관리본부의 모기 감시결과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 발령 기준이상으로 발견됨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이에 군산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모기 회피방법 준수 등 ‘일본뇌염’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은 지난해(7월 11일)보다 2주 정도 빠른 편 아니라 6월에 경보가 발령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 김철모 부시장, 내년 전국 체전 주경기장 준비상황 점검

익산시 김철모 부시장이 최근 전국 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 공사 현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부시장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으로 부터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 중인 주 경기장(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소장에게 무더위에 근로자들의 탈수예방 등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시장은 “2018년 전국체전은 익산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빈틈없는 준비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현원 기자

원광대병원, 베트남 진출 길 찾는다

호찌민시 의료홍보회 ‘메디칼 코리아 아세안 프로젝트’ 행사 참석

수준 높은 한국 의료가 해외 진출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의료홍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인 베트남 호찌민시 인터컨티넨탈 호텔 아시아나 사이공에서 열린 이번 메디칼 코리아 2017 아세안 프로젝트(Medical Korea 2017 ASEAN PROJECT) 행사는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한국의료홍보회에 호찌민 주요 공립·사립 종합병원 관계자들을 비롯 의료관광 에이전시, 여행사 등 100여 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메디칼 코리아 2017 아세안 프로젝트는 국내 주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 한국의료의 우수성 및 서비스 경쟁력 소개 및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 파트너 발굴, 의료인 연수, 환자송출 채널 발굴, 컨설팅 등

협력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고 전했다.

한편 원광대병원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각국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의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 확보와 해외 진출 교두보를 닦아왔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행사에서 초점을 두었던 각국 의료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이 향후 해외 의료 진출에 전진기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현원 기자

원광대, ‘국제 LED & OLED EXPO’ 참가

LED인력양성사업 · ICT융합그린에너지특성화 소개

원광대학교 전기응용기술연구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제 15회 국제 LED & OLED EXPO 2017에 참가해 센터에서 추진하는 LED인력양성사업 및 ICT융합그린에너지특성화 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엑스포는 14개국 260개 회사에서 570개의 부스가 설치됐으며, LED조명 및 시스템, 디자인 회사들의 신제품과 연구개발 결과 등

가하고, OLED 조명에 대한 기술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동부 라이텍 이재형 대표이사는 “원광대가 LED조명 분야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운영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으며, 한국광기술원 천우영 박사는 “모교 전기응용기술 연구센터가 국제 전시회에서 조명산업 분야를 주도하는 연구 및 인력양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4년 동안 지식경제부 지원을 받은 원광대 전기응용기술연구센터는 에너지 절약형 조명설계 인력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 대학원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화 및 거점화를 도모하고 있다. /익산=장현원 기자

‘우리동네 공원 우리가 돌봐요’

군산여상 등 5개 기관, ‘수송동 공원돌보미’ 협약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3일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등 관내 5개 기관과 ‘수송동 공원 돌보미 & 행복뜰씨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가꾸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수송동 공원 돌보미사업’을 추진하여 4월 19일에 5개 기관과 6개 공원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입양공원에 환경정화 활동, 대형폐기물 신고 등 공원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사업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은 5개 기관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유)좋은 이웃 ▲수송동새마을부녀회 ▲수송동중대분부가 참석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행복뜰씨사업과 연계를 통해 확대·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총 10개 기관에 입양된 11개소 공원이 지역 내 기관과 시민들이 스스로 가꾸는 공원관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참여기관들은 월 1회 이상 입양한 공원에서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과 공원 내 파손 시설물,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등 행정력을 보완하게 되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지판 설치, 소정의 정비용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동에서는 28개소 공원 중 돌보미가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5개 공원에 대해서도 연중 참여기관을 모집함으로써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종신 수송동장은 “공원을 시민들이 함께 가꾸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 ‘월명호수 공도교’ 개설공사 추진

7월 중순-9월 초까지

군산시민들의 힐링공간 월명호수 제방의 공도교, 월명공원 내 점방산과 설립산을 연결하는 이곳은 확 트인 수변경관과 시원한 산책로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D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월명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이후 좁은 폭으로 인해

장애우 및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쳐 왔다.

이에 군산시는 오는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현재 사용 중인 월명호수 공도교를 철거하고 새로이 개설함으로써 월명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제방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로 재해·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도교를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경관으로 조성하기로 하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평화육교 우회도로 불합리’

김충영 익산시의원 5분 발언

익산시의회가 3일 제203회 임시회 개최식을 갖고 7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14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충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익산=장현원 기자

김충영 의원은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추진에 있어 기존 교량의 철거 및 우회도로가 마련되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준비하고 있는 우회도로는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하고

목천동 화정마을 진입로를 평등도로 연결하고, 평화 제일이파트 교차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제안했다. /익산=장현원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용,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